

尹-李 '영수회담' 조율 중

민주당 “13兆 민생회복지원금, 尹 결심만 있다면 가능”

이재명 “尹 만나 민심 전달할 것 정치, 국민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야”
尹, 현금성 지원 부정적 인식 드러내 추진하는 건전재정 기조에 안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는 ‘영수회담’이 조율 중인 가운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어서 대통령실이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꾸준히 제1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당하면서 민심이 출렁이자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긍정하며 영수회담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 소식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려라’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

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고물가와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 경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13조원을 확보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급 문제는 대통령의 결심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며 “긴급민생자금 13조원 정도는 민생경기 부양 차원에서 못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건전 재정 기조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고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현금성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10번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150조원의

추가 예산을 집행했다.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업 지출이 많았으나, 약 4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쓴 박근혜 정부의 4배 가까운 수치였다. 나라빛도 문재인 정부 5년간 660조원에서 1000조원을 돌파하며 부채 증가 속도가 급격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두고 방만한 재정운동을 했으며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던 것인데, 최소한 13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받기에 당혹스럽운 안건이 될 수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의 근본 기조는 민생을 살리는 회담이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고물가와 고금리 한계에 부딪힌 분들이 많다. 정치권이 합심해서 민생을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경제 분야 이외에도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도 주요 논의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사건의 책임자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있었던 만큼, 윤 대통령에게 까지 수사 범위가 미칠 수 있는 특검에 대해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회 부의장 등 역임... 정무적 경륜 갖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尹과 교류했지만 친윤 계파색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 부의장, 국회 사무총장,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역임해 풍부한 정무적 경륜을 갖춘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과 가깝게 교류해왔지만 비교적 ‘친윤’ 계파색이 없고, 언론인 출신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친화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은 충남에서 5선을 지낸 기자 출신 정치인으로, 윤 대통령의 부친 고향과 같은 공주 출신이어서 동갑내기인 윤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2021년 6월 윤 대통령(당시 전 검찰총장)이 정치 참여를 처음 밝히는 자리부터 참석해 대선 때는 충남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당에서 2021년 4·7 재보궐선거와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했고 2022년 9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6선 의원·내무부 장관·충남지사를 역임한 고(故) 정석모씨의 아들이다. 한국일보에 입사해 15년간 기자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프로필

- 1960년 충남 공주출생
- 성동고등학교-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한국일보 논설위원
- 16·17·18·20·21대 국회의원
- 청와대 정무수석
- 국회 사무총장
- 새누리당 원내대표
- 21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스

근무했다.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특보로 자유민주연합(자민련)에 입당해 2000년 16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3선 의원이었던 2010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됐다. ‘JP계’라는 특성을 살려 갈등이 이어지던 친이계와 친박계 사이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

“2030년 ‘과학기술 글로벌 3대국’으로 도약”

尹, 과학기술·정보통신의날 참석 연구자 격려, 유공자에 훈·포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인공지능)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2030년에는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해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유공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개의 기념식을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행사가 열린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과학관으로,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석 이후 8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던 중 과학유공자를 소개하며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고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이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이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았다.

망이용대가, 망종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 참여해온 이희정 고려대 교수는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했다.

/서예진 기자 syj@

기업인 출신 재선의원, 가교 역할 ‘기대’

홍철호 정무수석 비서관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창업주

대통령실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에 내정된 홍철호(66) 전 의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창업주로, 경기도 김포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다. 기업인 특유의 합리적인 사고와 그가 보여준 원만한 여야 관계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용산과 여의도의와 가교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홍 의원은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나 부평고등학교, 예산농업전문학교(현 공주대학교 축산과)를 졸업했다.

그는 젊은 시절 25년간 기업을 경영한 사업가다. 닭 가공 업체 크레치코의 최고경영자(CEO)로서 지엔푸드 CEO인 동생 홍철호 씨와 2005년 굽네치킨 사업을 시작, 전국적으로 성장시켰다.

김포상공회의소 부회장, 김포경찰서경찰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으며 대중과 소통했다.

2014년 7월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김포시에 출마하며 정계에 본격 입문했다. 당시 홍 전 의원은 “성공한 CEO가 부자 김포를 만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나서 제19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어 제20대 총선에서도 김포을 지역에서 내리 재선에 성공했다.

홍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인 2017년 새누리당을 탈당, 바른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프로필

- 1958년 경기김포출생
- 부평고등학교-예산농업전문학교축산과졸업
- 새누리당 김포시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
- (주)크레치코 회장
- 김포상공회의소 부회장
- 제19·20대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사진뉴스

정당에 입당해 유승민 당시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같은 해 다시 바른정당을 탈당,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이준석 당 대표 시절에도 전략기획부총장을 지냈다.

제 21·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김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를 이끌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 나온다. /뉴스